

2018년 8월 2일, 제주시 도남동 강인생 씨 자녀택, 이효순 조사.

강인생(여, 1928년생,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애월읍 곽지리와 서울 등지에서 잠시 살다가 애월읍 어음리에 정착하여 50여 년째 살고 있다.

• 줄거리: 아들 삼형제 다음에 딸이 태어나자 귀하게 키웠는데 집안의 말이 한 마리씩 날마다 죽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막내아들이 지켜보았더니 여동생이 여우로 변하여 말을 죽이는 것이었다. 막내아들은 언젠가는 가족이 모두 여동생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하며 집을 나갔다.

오랜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온 막내아들을 맞이하는 것은 여동생뿐이었다. 여동생이 가족 모두를 죽였다는 것을 짐작한 막내아들은 도망을 갔다.

어느 새 여우는 바깥 가까이에 좁혀 다가왔다. 막내아들이 하늘옥황을 향해 기원을 하자 말이 하늘로 올라갔다. 여우도 같이 기원을 했는데 줄이 중간에서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죽었다. 막내아들이 여우를 절구에 넣어 뺨았더니 여우는 모기와 파리가 되었다.

[조사자] 여우 이야기 어떻게 건가 자세히 골아줍서.

[제보자] 아니, 여자를 너무 애껴 부난게. 오꽃 여우 돼 불언. 그 딸이. 아덜덜은 여운 줄 몰랐주마는.

아덜 시 성제에 딸 하나 나난 부모네가 막 아껴네. 딸은 아끼고 아덜은 일하고 허단 보난.

물을 으라 마리 질랐는디. 매일 처낙 물이 하나씩 죽어불어. 허난 물이 어떻게 연 영 죽었인고 허난에. 것도 죽은아덜이 좀 께가 시어네

“오늘 처낙엔 나가 지키켜. 가그네 좀 안 장으네. 어떻게난 물이 죽었인디 보쿠다.”

허난. 경허렌 허난

“콩이나 볶아 줘서.”

허멍 콩 볶아 주난, 9저단 콩 보드득 보드득 씹어 먹으멍 밤질 들어도 그냥 눈 영 안 곱앙 7만이 드러 브리당 보난. 아니, 그 누이가 온 후젠 물 우터레 확 올란 탁 거꾸로 앓안 똥고망더레 손 드물안 간을 뺨 확 먹어 불언. 게난 오꽃 물은 죽어불고, 게난 이젠 부모신디 오란 그 누이가 경헛덴 허민 거 거짓말이엔 막 이녁을 내몰아 불카부덴 줌줌허여네

“아이, 난 좀 들어부난 모르쿱디다. 성님덜이나 강 봅서.”

허연. 성은 가난 좀자 불언. 그런 걸 못 받.

물이 으라 필인디 맨날 그자 허나씩 몰부터 줄어가난. ‘아이구, 이거 큰일이여! 영 헛당 우리도 다 죽어질로구나.’

것도 죽은아덜이 허꿈 옥은 거난게. 경허연 이젠 허나네 그 죽은아덜이

“성님, 오늘 처낙엔 성님 강 봅서.”

허난에 성님이 강 보난 좀 들어부난 어떻 헌 차례 몰르커라렌 허난. ‘아이구, 이거 성님은 좀 들언 안 될로구나.’ 허연 이젠 죽은아덜이 ‘이디 시몬 다 죽어질로구나.’ 허여네

“난 이젠 어디 살단 오쿠다.”

허멍 오꼳 나가 불언. 나가 부난 그 누이가게 몬딱 몰도 잡아먹고, 성도 몬딱 잡아먹어 불언. 아방, 어명도 다 잡아먹어 불엇주기. 오래 살아부난. 어디 싯단 오래 살아부난.

[조사자] 아시가예?

[제보자] 아시가. 오래 살단

“이젠 집이나 강 보저. 어떻헨에 살았인고?”

집 강 보젠. 어디 하늘옥황에산디 막 오래 살안. 몰 탄에 막 몬저 오단 보나네 그 누이만 하나 셔둬어.

“하이고, 오라바님, 오라바님. 어디 간 읍디가? 어디 간 읍디가?”

허멍 막 돌려드는 거라.

[조사자] 하이고, 무섭다.

[제보자] 몬 잡아먹어 됴에. 이제 또시 오란. 그 죽은것도 잡아 먹젠. 막 경허여네

“하이고, 오라바님, 오라바님. 어디 간 읍디가?”

허난 이젠 그 죽은게 꿔가 들어노난에, ‘요걸 어떻허연 꿔를 부려사주. 안 됴켜.’ 허연 영 집이 오난에,

“어머니, 아버진 다 어디 갓이니?”

허나네. ‘어디에 뵈허레 갓우다. 뵈허레 갓우다.’ 허멍

“어디 앓아십서. 밥이나 헤 오쿠다.”

허난, ‘요것이 나 앓앗이몬 날 잡아 먹을 꿔 헐로구나.’ 허연 꿔를 부련. 이젠

“아이고, 강 허영 오라. 나 이디 앓앗이켜.”

“아, 나 뵈허레 가몬 오라방 가 불메, 가 불메.”

허나네

“나 아무디 안허영 7만이 앓앗이켜. 게거드네 너 홀목에 실 즐라매곡, 나 홀목에 실 즐라매곡 허영 조물조물 실 동기명 허영 오라.”

허난, 경허켄 허멍 강 뵈 허멍 영 조물조물 동겨 보멍 동겨 보멍. 이젠 앓안 무

시거 먹을 걸 멘들아 온 거라. 멘들아 온디, 그 죽은거는 이제 술째기 그 상발더  
레 실 줄라매어 뉘 나오라 분 거라. 나오란에 물을 탄 막 돌아값이난, 아니, 그게  
오란에. 그게 사람이 아니고 놀개 돌린 여우라 노난 파짝파짝 놀멍 막 좇아오는  
거라.

‘아이고, 저게 날 좇아완 날 먹어 불문 안 될로구나.’ 허연, 이젠 어디 막 물  
탄 가다네 어디 저 퍼령헌 물을 넘언에 물 탄 막 가는 거라.

그 아인 파짝파짝 놀멍 오라네 그 물을 건너가는 거라. 이젠 잡아 먹젠. 이젠  
물도 건너간 헤가난 흘 수 엇이

‘하이고, 이진 말이 아니다.’ 허연 이젠 어디 큰가시 곧 넘어가 가난 또 그 여  
우가 가시를 막 넘어가는 거라. 아이구, 이젠 그디 불을 붙여 부는 거라. 불을  
붙여도 또 파짝파짝 놀멍

“하이고, 오라방, 오라방. 이거 어떻 허연 넘어갑디가? 어떻허연 넘어갑디가?”  
막 가는 거라. 막 가 노난 흘 수가 엇언. 물 탄 막 가단에. 저, 하늘 옥황에서  
살당 온 생이라. 그추룩허난 하늘 옥황에 올라가 불젠 어디 간에

“이 몰아, 이 몰아. 살커건 하늘 옥황더레 올라가곡, 죽으커거든에 올라가지  
말라.”

경허난, 말이 ‘하앙!’ 허멍 하늘 옥황더레 확 올라가 부는 거라. 올라가 부난  
그 여우는 그냥 그 아래 와네 이젠 또 경허영 가 보젠

“하늘님아, 하늘님아. 나를 살리게컨 옥황에 올리곡, 죽이게컨 올리지 맙서.”  
허난, 반은 올라가단 탁 허게 줄이 떨어전. 떨어져 분 거라. 경허난 이젠 여우는  
죽어불고, 오라방은 올라간. 하늘 옥황에 올라갓는디 여우는 살지 못허영 죽으난  
그 죽은오라방은 내려완. 그 죽은 동생을 이젠 방에툅에 낀. 방에로 닥닥 모수멍

“어멍 아방 다 먹은 여우야, 죽으라. 죽영 모기나 뉘라. 프리나 뉘라. 모기나  
뉘라.”

허멍, 닥닥 못아 부난 그게 프리영 모기영 뉘엇젠. 그 여우가 프리영 모기영  
뉘연 사름 귀에 간. 남자신디 가문

“오라방, 오라방.”

허멍 가곡, 여자신디 가문

“아지망, 아지망.”

허멍 귀에 강 대영 경헌덴. 그게 모기 뉘어 불언.

여자신디 가문 ‘아지망, 아지망’ 허멍 앵앵 허멍 모기가 뉘긴덴.

- 핵심어: 여우, 죽은아덜(막내아들), 물(말), 옥황, 프리(파리), 모기, 성님(형님), 아시(아우),  
오라방(오라버니), 아지망(아주머니), 가시, 성제(형제), 아덜(아들), 간, 시성제(삼형  
제), 콩